

2025년 호주 농업전망: 축산부문

유 사 라*

1. 개요

호주 농업자원경제과학국(이하 ABARES: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은 매년 분기별로 호주의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단기 및 중기(향후 5년) 전망 보고서를 발간한다. '2025년 호주의 농업 주요 품목 보고서 3월호(Agricultural Commodities Report: March Quarter 2025)'는 중기(향후 5년) 농업 전망을 정리하며, 6월호는 호주 회계연도 기준(7월~차년 6월) 다음 해에 대한 전망 내용을, 9월호와 12월호는 당해에 대한 단기 전망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기준 시나리오와 대안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품목별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의 농업 생산과 수출 전망은 계절 조건과 세계 수요 및 공급과 같은 글로벌 요인에 크게 좌우되므로 두 시나리오는 세계 경제와 호주 내 기후 조건에 대해 각각 다르게 가정하고 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세계 GDP 성장률이 초기에는 둔화되고 이후 2030년까지 연평균 2.8%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기후 조건 측면에서는 평균 이상 수준의 생산을 지원하는 기후가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한편, 대안 시나리오에서는 세계 경제 회복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호주의 주요 수출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가정하며, 기후 조건 측면에서는 중립적 조건(2025-26), 엘니뇨(2026-27), 라니냐(2027-29), 중립적 조건(2029-30)을 가정하고 있다. 시나리오별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sryoo@krei.re.kr).

본고는 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국(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ABARES)에서 2025년 3월에 발간한 보고서 'Agricultural Commodities Report: March Quarter 2025' 중 제9장(Beef and veal), 제10장(Sheep meat), 제11장(Dairy)과 제13장(Pigs, Poultry and Eggs)을 번역·정리한 것임.

〈표 1〉 기준 시나리오와 대안 시나리오 비교표

구분	기준 시나리오 (Baseline scenario)	대안 시나리오 (Alternative scenario)
세계 경제 전망	성장세 둔화(GDP 연평균 2.8%)	성장세 개선(GDP 연평균 3.5%)
주요 특징	공급망 차질, 무역 장벽 증가, 미국 인플레이션 지속	수요 증가, 인플레이션-금리 안정, 아시아 신흥국 중심 성장
환율 가정	비교적 안정적	호주달러 강세 가정 (수출가격에 부정적 영향)
기후 조건	- 2025-26: 중립 - 2026-27~2027-28: 라니냐(습윤) - 2028-29: 엘니뇨(건조) - 2029-30: 중립	- 2025-26: 중립 - 2026-27: 엘니뇨(건조) - 2027-28~2028-29: 라니냐(습윤) - 2029-30: 중립
생산 전망	습윤 기후로 초기 생산 증가, 후기 일부 감소	초기 건조로 생산 저조, 후기 습윤 기후로 회복
실질 가격 전망	곡물 축산물 가격 상승 (공급 부족 및 재축산 영향)	전반적으로 높은 가격 수준 유지, 특히 후반기에 상승세 두드러짐 (수급 불균형)
수출 전망	기후호조 + 글로벌 공급 부족 → 수출 증가	가격은 높으나 호주달러 강세로 가격경쟁력 일부 저하
축산 부문 특징	초기: 재축산 시작, 출하 감소 후기: 출하 증가, 가격 하락	초기: 출하 증가, 가격 하락 후기: 재축산 지연, 가격 반등

자료: ABARES(2025), pp.12-14.의 내용을 저자가 번역 및 재가공함.

본 보고서의 전망 대상 주요 품목은 밀, 잡곡(보리, 수수 등), 유지종자(카놀라), 원예작물, 와인, 쇠고기, 유제품, 양고기, 수산물 등이다. ABARES는 이들 품목에 대해 가격,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생산액, 수출액,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2025년 호주의 농업 주요 품목 보고서(3월호)의 내용 중 유제품과 계란을 포함한 축산물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육류 전망

2.1. 쇠고기(Beef and veal)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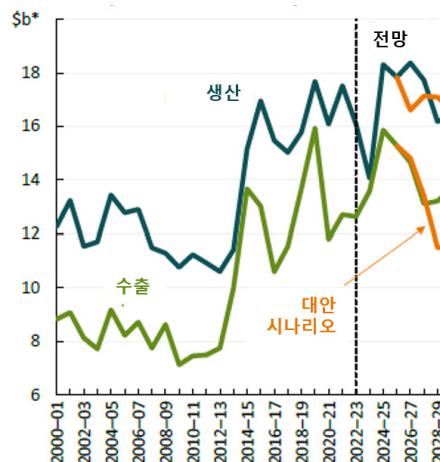
2.1.1. 쇠고기 생산액 및 수출액 전망

(생산액) 2024-25년 호주의 쇠고기, 송아지고기 및 생우 명목 생산액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183억 호주달러로 전망된다. 2025-26년에는 184억 호주달러로 예측되며, 이는

쇠고기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쇠고기 산지경매가격(saleyard price)이 상승하여 상쇄된 수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2029-30년까지 실질 생산액은 162-184억 호주달러 내에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 164억 호주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은 산지경매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재입식(herd rebuilding)으로 인한 쇠고기 생산 감소가 더 크게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안 시나리오에서도 생산량은 초기 급격한 상승 이후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며, 실질 생산액은 166억 호주달러 수준으로 예측된다.

(수출액) 2024-25년 쇠고기, 송아지고기 및 생우 수출액이 159억 호주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다. 수출 단가와 물량 모두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수요 확대로 인해 발생한 현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2025-26년에는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로 소폭 하락한 158억 호주달러가 예상되지만, 수출 단가의 강세로 인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실질 수출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2029-30년에는 136억 호주달러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호주산 쇠고기의 실질 가격 하락과 수출 물량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한편, 대안 시나리오에서는 수출 단가의 하락폭이 더 커져 2029-30년 실질 수출 가치는 115억 호주달러로 전망된다.

〈그림 1〉 쇠고기, 송아지고기 및 생우 실질 생산액 및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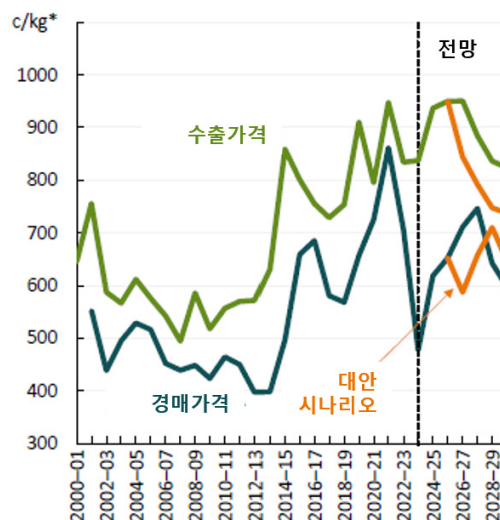
주: 점선 오른쪽의 데이터는 예측치 및 전망치임. * 2024-25 호주달러.
자료: ABARES(2025), p.73.

2.1.2. 쇠고기 가격 전망

(가격) 산지경매가격은 2024-25년에 전년 대비 33% 상승한 킬로그램당 6.19 호주달러 (도체중 기준)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의 수입 수요 증가, 국내 공급 증가, 그리고 호주달러 약세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2025-26년에는 9% 상승하여 킬로그램당 6.74 호주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실질 가격 기준으로는 2027-28년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2029-30년에는 킬로그램당 5.97 호주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가격) 수출 단가 또한 2024-25년에는 15% 상승한 킬로그램당 9.63 호주달러로 전망되며, 이어지는 2025-26년에는 킬로그램당 10.06 호주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기적으로는 세계 공급 증가에 따라 하락세로 전환되어, 2029-30년에는 킬로그램당 8.24 호주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쇠고기 실질가격 및 수출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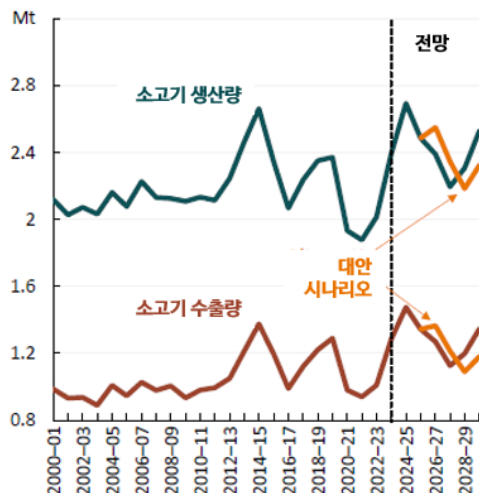
주: 점선 오른쪽의 데이터는 예측치 및 전망치임. * 2024-25 호주달러.
자료: ABARES(2025), p.76.

2.1.3. 쇠고기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

(생산량) 생산량은 2024-25년에 전년 대비 12% 증가한 270만 톤(도체중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0-23년 동안의 소 재입식의 결과로, 도축 적령기에 접어든 소들로 인해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5-26년에는 도축 가능 가축 수의 감소로 전년 대비 8% 감소한 250만 톤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적으로는 생산량이 2027-28년까지 감소한 뒤, 이후 기후 조건 개선에 힘입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 생우 수출은 2024-25년 전년 대비 23% 증가한 81.7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은 도축 및 비육용 수출이다. 인도네시아의 수요 회복과 인도산 버팔로육의 경쟁력 약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5-26년에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89.8만 마리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기적으로는 산지경매가격 상승에 따라 수출량은 감소한 뒤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10년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의 아동 및 임산부 대상 급식 프로그램 추진으로 인해 번식용 생우 수입 확대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브라질이나 뉴질랜드 등 다른 수출국의 시장 접근성이 확대될 경우 호주산 생우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그림 3〉 쇠고기 생산량 및 수출량



주: 점선 오른쪽의 데이터는 예측치 및 전망치임. * 2024-25 호주달러.
자료: ABARES(2025), p.76.

2.1.4. 쇠고기 관련 주요 이슈

세계 시장에서의 공급은 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가 이끌고 있으며, 미국은 도축 완료 후 재입식(rebuilding)으로 생산이 감소하는 반면, 브라질은 생산성 향상과 유전자 개량 등을 통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미국이 2025-26년에 수입 수요를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은 경기 침체와 국내 재고 증가로 인해 수입 수요가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24년 말부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2025-26년 호주 수출에 중대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회 요인으로는 미국 수요의 확대가 꼽힌다. 미국은 현재 호주산 쇠고기에 대해 안정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하고 있으며, 캐나다·멕시코의 수출 축소와 맞물려 호주의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생우 및 쇠고기 수입에 대한 미국의 신규 관세(2025년 2월부터 시행)는 향후 미국 내 가격 상승과 수입 구조 변화, 나아가 미국 내 쇠고기 생산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호주산 쇠고기의 가격 경쟁력 유지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제역(FMD)과 렘피스킨병(LSD) 등의 가축 전염병은 호주의 쇠고기 수출에 대한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수입 세이프가드 조사는 호주를 특정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으나, 시장 접근성과 수출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2.2. 양고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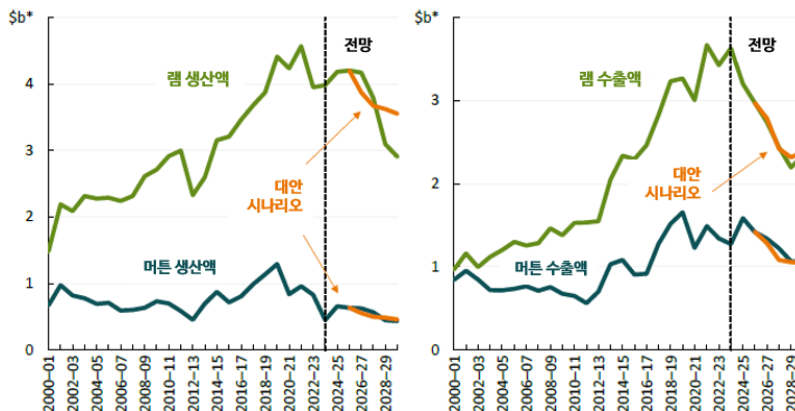
2.2.1. 양고기의 생산액 및 수출액 전망

(생산액) 2024-25년 호주의 양고기 및 생양의 명목 생산액은 49억 호주달러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다. 생산량이 소폭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산액이 전망되는 이유는 산지경매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025-26년에도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며, 명목 생산액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50억 호주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기 전망에 따르면 실질 생산액은 2029-30년까지 감소하다 최종적으로 34억 호주달러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재입식을 위해 도축 가능한 개체 수가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생산량이 축소되고, 이로

인해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낮은 산지경매가격을 가정한 대안 시나리오에서 2029-30년의 실질 생산액은 기준 시나리오보다 높은 수준인 42억 호주달러로 예측된다.

(수출액) 수출 측면에서는 2024-25년 양고기 및 생양 수출 명목 수출액이 48억 호주달러로 유지되며, 이는 최근 5년 평균보다 12% 높은 수준이다. 이는 수출 단가 상승 효과가 수출 물량 감소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5-26년에는 수출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수출액은 전년 대비 5% 하락한 45억 호주달러로 전망된다. 중기적으로는 실질 수출액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9-30년에 양고기 생산 증가에 따라 소폭 반등하며 34억 호주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안 시나리오에서 실질 수출액은 수출 단가 상승 효과로 인해 36억 호주달러로 예측된다.

〈그림 4〉 양고기와 머튼의 실질 생산액 및 수출액



주: 점선 오른쪽의 데이터는 예측치 및 전망치임. * 2024-25 호주달러.
자료: ABARES(2025), p.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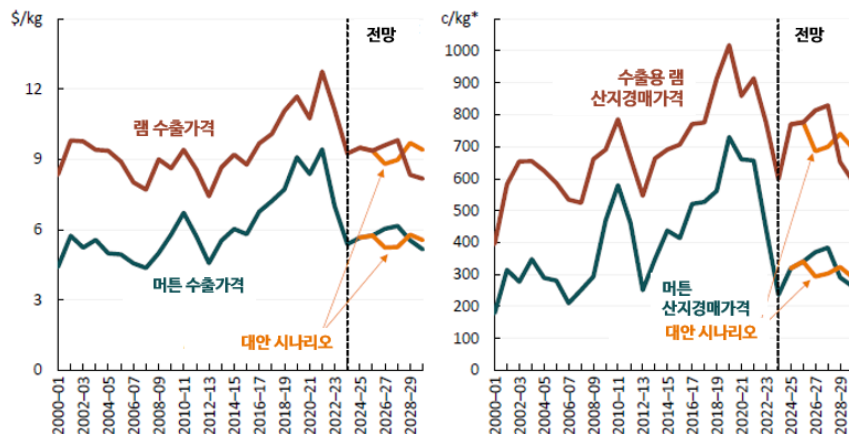
2.2.2. 양고기의 가격 전망

(가격) 가격 전망을 살펴보면, 2024-25년 램(Lamb)¹⁾과 머튼(mutton)의 산지경매가격은 각각 킬로그램당 7.70 호주달러와 3.19 킬로그램당 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32%,

1) Sheep Producers Australia(<https://www.sheepproducers.com.au/lambdefinition>)에 따르면, 램(lamb)은 12개월 미만이거나 영구 앞니(permanent incisor teeth)를 사용하지 않은 양으로 정의되며, 이 정의는 2019년 7월 1일부터 호주 내 주요 기관들(Australian export legislation, NSW 및 WA의 주 법령 등)에 의해 공식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38%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25-26년 램 산지경매가격의 경우 전년 대비 4% 상승한 킬로그램당 8.02 호주달러, 머튼은 전년 대비 10% 상승한 킬로그램당 3.51 호주달러가 예상된다. 이는 세계 수요 증가와 함께 공급량 감소, 특히 재입식에 따른 도축 지연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기적으로는 가격이 점차 하락하여 2029-30년에는 램의 경우 킬로그램당 5.94 호주달러, 머튼의 경우 킬로그램당 2.62 호주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대안 시나리오에서는 가격이 하락한 뒤 다시 상승하여 램의 경우 킬로그램당 6.97 호주달러, 머튼의 경우 킬로그램당 2.91 호주달러로 예측된다.

〈그림 5〉 양고기 산지경매가격 및 수출가격



주: 점선 오른쪽의 데이터는 예측치 및 전망치임. * 2024-25 호주달러.
자료: ABARES(2025), p.86.

2.2.3. 양고기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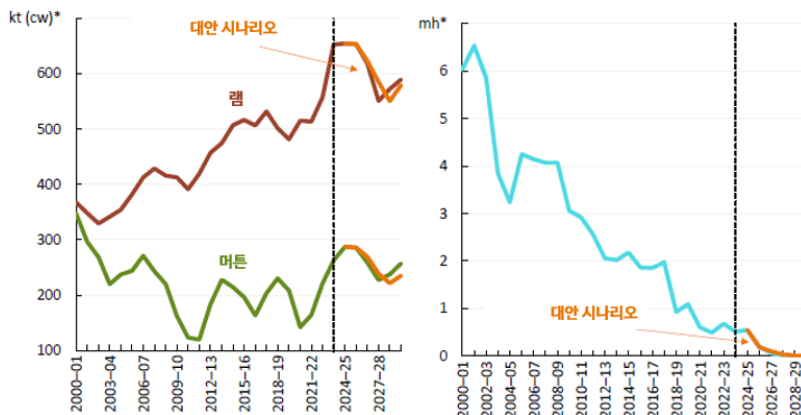
(생산량) 2024-25년 호주의 양고기 생산량은 도체중 기준으로 전년 대비 1% 감소한 90.4만 톤으로 전망된다. 도체중은 다소 줄었지만, 도축 두수의 증가가 이를 상쇄하며 전체 생산량은 큰 폭의 감소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량 양의 도축이 늘면서 도축 처리 능력이 확대된 점이 생산량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2025-26년에는 도축 가능 가축 수 감소로 인해 생산량이 전년 대비 3% 줄어든 87.3만 톤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램 생산량은 58.7만 톤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는 여전히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반면 머튼 생산량은 전년 대비 9% 감소한 28.6만 톤 수준으로 예측된다. 2024년 12월 기준 머튼의 도축 비중은 전체의 36%로, 최근 5년 평균인 25%보다 높다. 이는 고령 양의 도축 증가와 육용 중심 품종으로의 전환 흐름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중기적으로는 2027-28년까지 양고기 생산량이 감소한 후, 방목 여건 개선과 양 떼 보유 증가를 전제로 2029-30년에는 78.7만 톤 수준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조건이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대안 시나리오에서는 2029-30년 생산량이 83.1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후반기 강우량 증가에 따른 도축 가능 두수 확대 및 도체중 증가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수출양) 생양 수출은 2024-25년 전년 대비 8% 증가한 54.7만 마리로 소폭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역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2025-26년에는 전년 대비 40% 급감한 32.8만 마리로 예상된다. 이러한 급감은 호주 서부 지역에서의 양 떼 규모 축소와 더불어, 생양 수출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박스 포장 램 및 머튼 제품 수출에 주력하려는 생산자들의 전략 변화에 기인한다. 한편, 호주 정부는 2028년 5월 1일을 기점으로 해상 생양 수출을 단계적으로 종료할 계획이다. 이 정책 변화는 향후 생양 수출량 감소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생양 수출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료 이후에는 극히 제한된 항공 수출만이 일부 유지될 전망이다.

〈그림 6〉 양고기 생산량 및 생양 수출량



주: 점선 오른쪽의 데이터는 예측치 및 전망치임. *cw:도체중을 나타냄. *mh: 백만두수를 나타냄.
자료: ABARES(2025), p.87.

2.2.4. 양고기 관련 주요 이슈

세계 양고기 시장은 현재 수요 증가와 공급 제약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로, 2025-26년에는 이러한 불균형이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 중동, 한국을 중심으로 강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자국 내 생산량 감소로 호주산 양고기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동 지역은 인구 증가, 소득 수준 향상, 관광 산업의 성장에 따라 양고기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한국 또한 가처분 소득 증가와 함께 프리미엄 식문화 확산으로 고급 양고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며 수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은 경기 불안과 함께 돼지고기 등 대체 육류와의 경쟁 심화로 인해 양고기 수입 수요가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

공급 측면에서는 주요 수출국인 호주와 뉴질랜드 모두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는 도축 두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여전히 높은 생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뉴질랜드는 번식률 저하와 경작지 전환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양 떼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의 세계 수출 점유율은 29%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호주는 점진적으로 39%까지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OECD는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호주의 양고기 산업은 전통적인 울(wool) 중심 구조에서 육류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중동 및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의 기회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생양 수출의 단계적 종료 계획, 중국 수요의 불확실성, 기후 및 계절 조건에 따른 생산량 변동성은 향후 산업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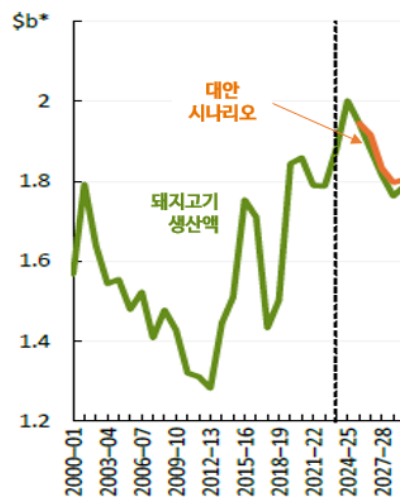
2.3. 돼지고기 전망

2.3.1. 돼지고기 생산액 전망

(생산액) 2024-25년 호주의 돼지고기 명목 생산액은 20억 호주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부분 가격 상승에 따른 결과로, 생산량 자체의 큰 증가는 없지만 강한 수요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경쟁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025-26년에는 가격이 소폭 하락하더라도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전체 명목 생산액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돼지고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지속되며, 견고한 수요가 유지될 전망이다. 전망기간 동안 실질 생산액은 20억 호주달러에서 18억 호주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의 생산액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안 시나리오에서의 실질 생산액은 기준 시나리오보다 높은 수준인 19억 호주달러로 예측된다.

〈그림 7〉 돼지고기 실질 생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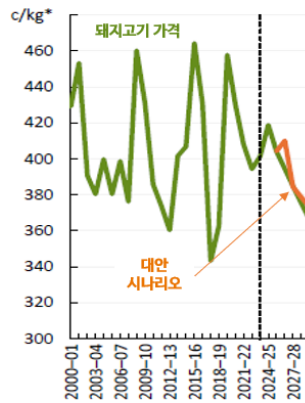


주: 점선 오른쪽의 데이터는 예측치 및 전망치임. * 2024-25 호주달러.
자료: ABARES(2025), p.111.

2.3.2. 돼지고기 가격 전망

2024-25년 호주의 돼지고기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7% 상승한 킬로그램당 4.19 호주달러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외 수요 증가와 수입 물량 감소가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2025-26년에도 쇠고기 등 고가 육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어 가격 또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는 사료비 하락과 생산량 증가로 인해 실질 가격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요 기반이 견고하고, 타 육류 대비 가격 경쟁력이 유지되는 한, 가격 하락은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 돼지고기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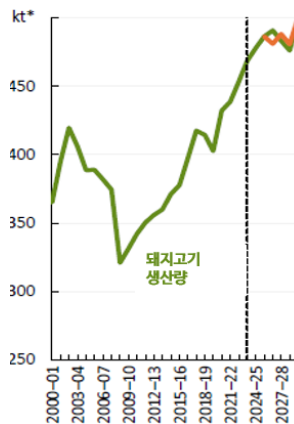


주: 점선 오른쪽의 데이터는 예측치 및 전망치임. * 2024-25 호주달러.
자료: ABARES(2025), p.113.

2.3.3. 돼지고기 생산량 전망²⁾

2024-25년 호주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증가한 47.8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도체 중량의 증가와 사료비 하락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9〉 돼지고기 생산량



주: 점선 오른쪽의 데이터는 예측치 및 전망치임. * 도체중을 나타냄.
자료: ABARES(2025), p.115.

2) 원문에서는 돼지고기와 가금류의 수출량을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어 돼지고기 수출량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술하지 않음.

2025-26년에도 도축 두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힘입어 생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기적으로는 사료비 상승과 기후 조건 등의 계절적 변수로 인해 일시적인 생산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나,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에 따라 점진적인 회복세가 예상된다. 한편, 대안 시나리오에서는 2026년 이전부터 건기 조건의 영향이 반영되어 생산 감소가 기준 시나리오보다 앞당겨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3.4. 돼지고기 주요 이슈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돼지고기 생산량은 1억 1,500만 톤 수준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과 유럽연합(EU)의 생산 감소가 미국, 베트남, 브라질의 생산 증가를 상쇄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 세계 돼지고기 수출량은 미국과 캐나다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소폭 증가한 1,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EU의 돼지고기 수출은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과 그에 따른 무역 제한 조치로 인해 수출 가능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SF는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양돈 산업에 위협이 되는 전염병으로, 수출국의 생산·공급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호주 역시 ASF를 포함한 가축 질병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현재 호주는 ASF 비발생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불법 수입된 오염육 제품이 음식물로 사용되거나 야생 멧돼지에게 노출될 경우 등 ASF 유입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검역·방역 시스템의 지속적 강화가 필수적이다. 한편, 2025년 2월 퀸즐랜드 남부 양돈장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JEV)가 새롭게 확인되었고, 뉴사우스웨일스 및 빅토리아에서도 추가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다. JEV는 모기를 통해 전파되며 돼지에게 생식 장애를 유발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2022년 이후 처음으로 퀸즐랜드 지역에서 다시 확인된 사례로 방역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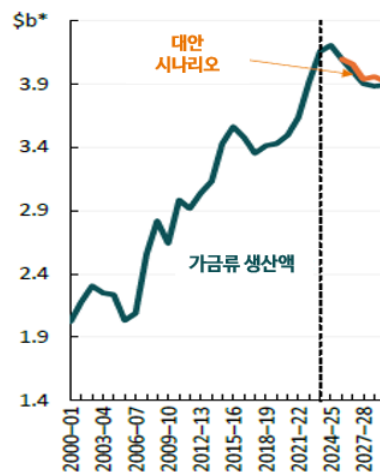
또한, 호주 정부는 2024년 1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슈퍼마켓 부문의 가격 구조 및 유통망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CCC는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을 사례로 삼아 생산자-도매업자-소매업자 간 가격 및 마진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2025년 2월 발표된 최종 보고서는 돼지고기 공급망 내 가격 형성과 유통 구조에 대한 정부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4. 가금류 전망

2.4.1. 가금류 생산액 전망³⁾

(생산액) 가금류의 경우 2024-25년에 사상 최대치인 42억 호주달러의 생산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속적인 소비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2025-26년 가격은 소폭 하락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생산량 증가로 인해 생산액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쇠고기 및 양고기 대비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조리 활용도 덕분에 가금류에 대한 소비자 선호는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전망기간 동안 실질 생산액은 41 호주달러에서 40억 호주달러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의 생산액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안 시나리오에서의 실질 생산액은 기준 시나리오와 동일한 수준인 40억 호주달러로 예측된다.

〈그림 10〉 가금류 실질 생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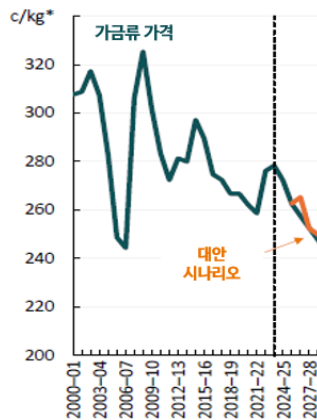
주: 점선 오른쪽의 데이터는 예측치 및 전망치임. * 2024-25 호주달러.
자료: ABARES(2025), p.111.

3) 원문에서는 가금류와 돼지고기의 수출량을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어 가금류 수출량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술하지 않음.

2.4.2. 가금류 가격 전망

(가격) 가금류 가격은 2024-25년에 킬로그램당 2.72 호주달러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국내외 수요 확대와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2025-26년에는 고급육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가격 대비 단백질 섭취 효율성이 높은 가금류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지속되고 가격도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금류 가격은 사료비, 전기요금, 인건비 등 주요 투입 비용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 연도별로 가격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실제로 대안 시나리오 오에서는 2026-27년 전기 조건 하에서 사료비 상승과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인 가격 급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림 11〉 가금류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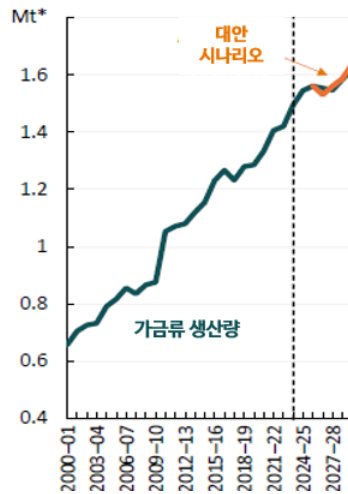


주: 점선 오른쪽의 데이터는 예측치 및 전망치임. * 2024-25 호주달러.
자료: ABARES(2025), p.113.

2.4.3. 가금류 생산량 전망

2024-25년 가금류 생산량은 150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도체 중량 증가와 사료비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2025-26년에도 도축 두수 확대에 따라 생산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중기적으로는 사료비 변동과 기후 조건에 따른 영향으로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나, 인구 증가와 안정적인 소비 수요에 힘입어 장기적인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가금류 생산량



주: 점선 오른쪽의 데이터는 예측치 및 전망치임. * 도체중 기준.
자료: ABARES(2025), p.113.

2.4.4. 가금류 주요 이슈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1억 5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사료 가격 하락과 소비자 수요 강세에 힘입은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생산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닭고기 수출 역시 1,38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글로벌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금류 산업은 전망 기간 동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를 중심으로 한 가축 질병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최근 빅토리아주 북부에서 확인된 H7N8형 조류인플루엔자는 기존 뉴사우스웨일스(NSW) 및 ACT 지역에서 발생했던 2024년의 변종과는 다른 유형으로, 현재 통제구역 내에서 격리 조치 중이다. NSW 주정부는 2025년 1월 호크스버리 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종식되었음을 선언했으나, 빅토리아 지역의 추가 확산 사례는 새로운 발생 위험이 여전히 높음을 시사하며, 농장 단위의 방역 관리 강화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유지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H5형 조류인플루엔자(clade 2.3.4.4b)는 가금류 및 야생조류 폐사와 포유류 감염을 초래하고 있으나, 호주는 현재까지 이 계열에서 자유로운 유

일한 대륙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억 호주달러 이상을 투자해 감시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4년 1월, 호주 정부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슈퍼마켓 부분의 가격 구조와 공급망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으며, ACCC는 2025년 2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닭고기, 돼지고기, 계란을 사례로 생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간 가격 및 마진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가금류 산업의 유통 구조와 가격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유제품 및 계란 전망

3.1. 유제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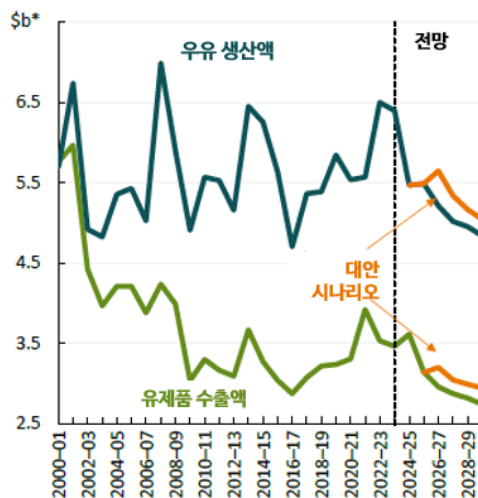
3.1.1. 유제품 생산액 및 수출액 전망

(생산액) 2024-25년 호주의 유제품 명목 생산액은 전년 대비 12% 감소한 55억 호주달러로 예상된다. 이는 생산자가격(farmgate milk price)과 우유 생산량이 동시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2025-26년에는 우유 생산자가격의 회복에 힘입어 생산액이 57억 호주달러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격 상승이 생산량 감소를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유제품의 실질 생산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29-30년까지 약 48억 호주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산유량 감소와 함께 실질 우유 생산자가격의 하락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안 시나리오에서는 국제 유제품 가격과 우유 생산자가격이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실질 생산액이 약 50억 호주달러 수준으로 다소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액) 2024-25년 호주의 유제품 명목 수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36억 호주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글로벌 유제품 가격 상승과 수출 물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25-26년에는 수출 단가와 물량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명목 수출액은 10% 하락한 32억 호주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는 실질 수출액이 점진적으로 하락해 2029-30년까지 29억 호주달러에서 27억 호주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급이 수요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대안 시나리오에서는 국제 가격이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되며, 이에 따라 실질 수출액은 29억 호주달러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13〉 우유 실질 생산액 및 수출액



주: 점선 오른쪽의 데이터는 예측치 및 전망치임.
자료: ABARES(2025), p.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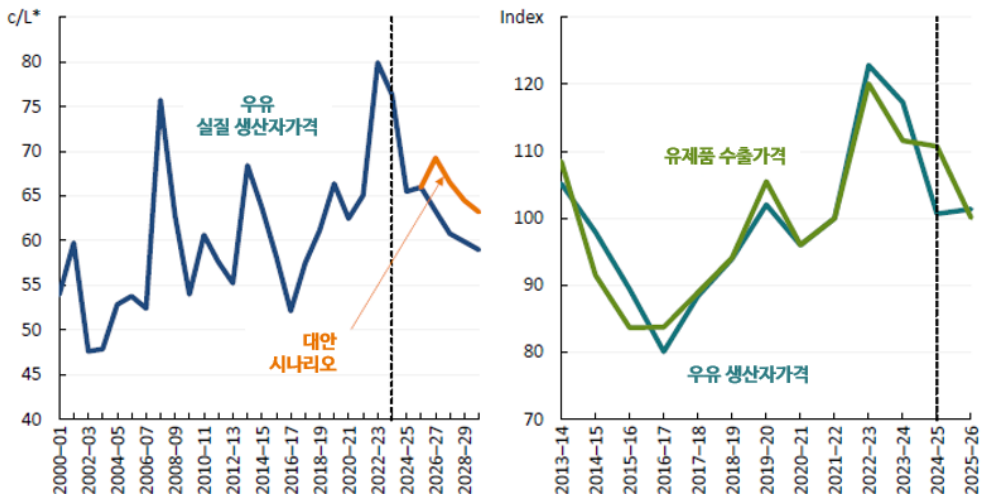
3.1.2. 유제품 가격 전망

(가격) 2024-25년 호주의 우유의 생산자가격은 전년 대비 12% 하락한 리터당 65.5호주 센트(고형분 기준 8.6호주달러/kg)로 예상된다. 이는 유가공업체 간 원유 확보 경쟁이 약화되면서 가격 하방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2025-26년에는 우유 생산자가격이 리터당 68.2호주센트(약 8.9호주달러/kg)로 4%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반적인 원유 공급 감소와 시즌 초반 생산 둔화, 그리고 글로벌 가격 강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중기적으로는 세계 유제품 가격 하락, 특히 중국의 수요 둔화와 주요 수출국들의 생산 증가가 맞물리면서, 실질 생산자가격은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9-30년까지 실질 가격은 리터당 63호주센트에서 59호주센트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제 수요가 보다 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대안 시나리오에서는 우

유 생산자가격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2029-30년에는 실질 가격이 리터당 63호주센트로 예측된다.

(수출가격) 2024-25년에는 고지방 유제품(예: 버터, 치즈 등)의 글로벌 공급 부족으로 인해 수출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러한 공급 제약은 북반구 지역의 젖소 감소와 유럽 내 블루팅(Bluetongue)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주요 생산국의 원유 생산이 감소하면서 고지방 유제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5-26년에는 미국과 유럽의 생산량이 회복하여 모든 유제품의 수출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 내 우유 생산 증가와 수입 수요의 약세가 맞물려, 국제 유제품 시장의 가격 하락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는 전반적인 공급 증가 속도가 수요 증가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유제품의 실질 수출가격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고지방 유제품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다른 품목에 비해 가격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안 시나리오에서는 세계 유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가 가정되어 수출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14〉 우유 실질 생산자가격, 유제품 생산자가격 및 수출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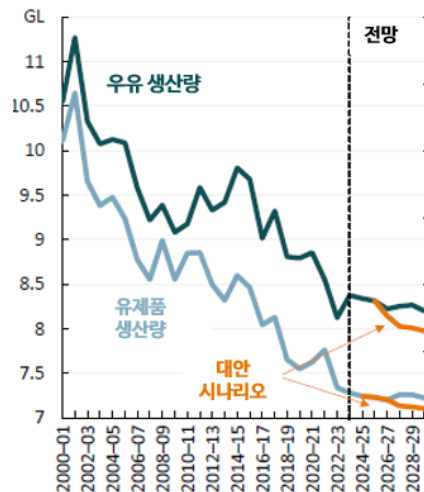


주: 점선 오른쪽의 데이터는 예측치 및 전망치임.
자료: ABARES(2025), p.96.

3.1.3. 유제품 생산량 전망

2024-25년과 2025-26년 호주의 우유 생산량은 모두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산유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젖소 수의 감소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2024-25년 상반기에는 유제품 수출량이 전년 대비 6% 증가하였으며, 특히 버터는 북반구의 공급 부족 영향으로 145%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5-26년에는 유제품 수출량이 1% 가량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기간 전체를 놓고 보면, 우유 생산량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2029-30년에는 약 82억 리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대안 시나리오에서는 초기의 건조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 젖소 수가 더 크게 감소할 것으로 가정하여 산유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생산량은 2029-30년 기준 80억 리터 수준으로 전망된다.

〈그림 15〉 우유 및 유제품 생산량



주: 점선 오른쪽의 데이터는 예측치 및 전망치임.
자료: ABARES(2025), p.98.

3.1.4. 유제품 주요 이슈

2025-26년 이후 세계 유제품 시장의 공급 측면에서 미국과 뉴질랜드의 생산 증가가 유럽연합(EU)의 생산 감소를 상쇄하면서 전체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는

젖소 사육 두수의 증가와 계절적 생산 여건의 개선에 따라 생산량이 늘어날 전망이며, 미국 또한 젖소 수와 산유량이 모두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럽연합은 블루팅(Bluetongue) 바이러스의 확산과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유제품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분유 생산보다는 치즈 생산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공급 구조에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수요 측면에서는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정부가 추진 중인 '무료 영양급식 프로그램(Free Nutritious Meals Program)'으로 인해 분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인해 수입 유제품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중국은 내수 우유 생산 증가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치즈 및 탈지분유 등 수입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 정부의 자급률 제고 정책과 소비 환경 둔화는 중장기적으로 수입 수요를 지속적으로 억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수요 증가 속도는 공급 증가 속도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동남아시아 지역은 경제 성장과 소득 수준 향상에 힘입어 유제품 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도적 측면에서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2024년 1월부터 슈퍼마켓 가격 구조와 농가-소매 간 가격 연동성을 포함한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이 조사는 유제품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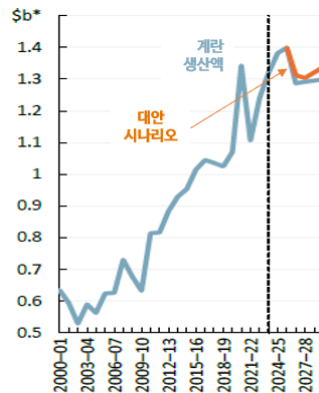
질병 발생 또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반구에서는 블루팅, 구제역(FMD), 조류 인플루엔자(HPAI) 등의 전염병이 유제품 생산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수출 가능 물량을 감소시켜 세계 유제품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은 세계 유제품 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생산 변동은 국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구제역과 럽피스킨병(LSD)의 지속적인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호주의 유제품 수출 산업에 가축 질병 측면에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체계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3.2. 계란 전망

3.2.1. 계란 생산액 전망

(생산액) 2024-25년 계란 명목 생산액은 가격 상승 효과가 생산량 감소 효과를 능가하여 역대 최대인 14억 호주달러로 전망된다. 2025-26년에는 가격하락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회복되며 15억 호주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는 실질 생산액이 점차 하락하여 2029-30년에는 13억 호주달러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가격 하락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6〉 계란 실질 생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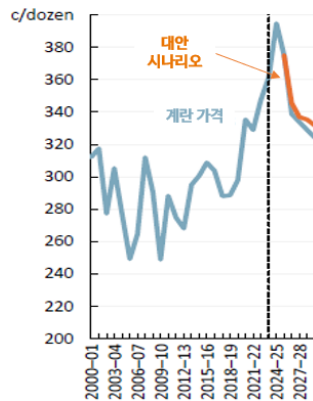


주: 점선 오른쪽의 데이터는 예측치 및 전망치임.
자료: ABARES(2025), p.111.

3.2.2. 계란 가격 전망

계란 가격은 2024-25년 전년 대비 12% 상승한 3.95호주달러/12개로 예측되며, 이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공급 부족과 계절적 수요 증가, 그리고 케이지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5-26년에는 생산량 회복으로 인해 전년 대비 2% 하락한 3.87호주달러/12개로 안정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수치는 5년 평균인 2.75호주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중기적으로는 사료비 하락과 생산 증가로 실질 가격은 완만히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동물복지와 가축 질병, 투입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여전히 과거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그림 17〉 계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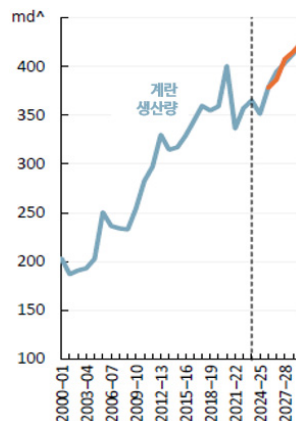


주: 점선 오른쪽의 데이터는 예측치 및 전망치임.
 자료: ABARES(2025), p.113.

3.2.3. 계란 생산량 전망

2024-25년 계란 생산량은 2024년에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약 180만 마리가 살 처분된 결과 전년 대비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발생한 빅토리아 지역의 AI가 효과적으로 통제될 경우 2025년 하반기에는 생산량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26년에는 생산량이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에 맞춰 향후 전망 기간 동안 생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18〉 계란 생산량



주: 점선 오른쪽의 데이터는 예측치 및 전망치임.
 자료: ABARES(2025), p.115.

3.2.4. 계란 주요 이슈

계란 산업은 가금류 및 돼지고기 산업과 함께 가축 질병 측면에서 높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HPAI)는 계란 생산에 있어 가장 심각한 위협 요소 중 하나로, 2025년 1월 기준 호주 빅토리아(VIC) 지역에서 추가 확산 사례가 보고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H5 계열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호주는 이 계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대륙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1억 호주달러 이상을 투입하여 질병 감시 체계 및 긴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2024년부터 슈퍼마켓 가격 구조 및 유통 체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에는 계란 산업의 유통 구조도 포함되어 있다. ACCC는 생산자-도매업자-소매업자 간 가격 연동성, 유통 마진, 가격 전가 구조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정 경쟁 및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조사의 최종 보고서는 2025년 2월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후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따라 계란 산업의 중장기적 공급망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요약 및 시사점

2025년 호주 축산물 시장은 전반적으로 생산량은 정체되거나 다소 감소하나,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여 명목 생산액이 상승하거나 고점을 유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쇠고기와 양고기 부문에서는 미국, 중동 시장 중심의 수입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수입 단가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에 따르면 호주의 쇠고기 및 양고기 가격은 향후 1~2년간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호주산 쇠고기와 양고기 수입단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호주산 이외의 국가들로 수입 다변화를 실행하거나, 대체 육류인 돼지고기나 가금류의 수입을 확대하여 축산물 가격 상승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제품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고지방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호주의 치즈·버터 생산 단가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중국의 유제품 수입 수요 둔화는 단기적으로 한국에게 유리한 수입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소비자 수요 구조도 변하고 있다. 호주 사례처럼 쇠고기나 양고기의 가격 상승이 심화될수록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돼지고기나 가금류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 대비 효율성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는 한국 내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대체육류 확보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및 외식산업과의 전략적 협업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주목할 점은 유통 구조의 개선 필요성이다. 호주 정부는 ACCC(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를 통해 슈퍼마켓 유통 마진 구조, 농가 수취가격과 소비자 판매가 간의 연동성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 결과가 향후 공급망 조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또한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해 축산물 도소매 간 가격 격차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면, 가격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동물복지와 지속가능한 생산방식 전환도 향후 축산 정책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호주는 2036년까지 케이지 계란 생산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주요 유통업체들도 2025년까지 케이지 계란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 유통·외식업체에도 ESG 흐름 속에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동물복지형 농장 전환 지원과 소비자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안정적인 수급’, ‘투명한 유통’, ‘소비자 신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이라는 4대 요소가 한국 축산물 수입·생산정책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호주 축산물 시장의 변화는 단순히 수입가격 변동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농축산업의 구조조정과 대응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 참고문헌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ABARES). (2025, March 4). Agricultural Commodities Report: March 2025 [PDF]. <https://www.agriculture.gov.au/abares/research-topics/agricultural-outlook>

■ 참고사이트

Sheep Producers Australia(<https://www.sheepproducers.com.au/lambdefinition>). 검색일: 2025.6.20.